

한국판-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Ⅱ 타당화 연구*

홍영근 [†]	문지혜	조현재
부산디지털대학교	경남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본 연구에서는 먼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척도에 대해 제기된 역채점 문항의 문제를 살펴 보았다. 그리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의 대안으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2(BFNE2)를 번안하여, 요인구조적 특성을 평가하고 타당화 하였다. 먼저 연구1에서는 대학생 330명을 대상으로 한국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K-FNE; 이정윤, 최정훈, 1997)를 실시하여 요인구조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평서문 문항들로 구성된 한 요인과 역채점 문항으로 구성된 다른 한 요인이 추출되었다. 둘째, 두 요인과 사회불안 관련 질문지와의 상관을 분석한 결과, K-FNE의 평서문 문항들과 사회불안 질문지와의 상관은 유의하였으나 역채점 문항들과 사회불안 질문지와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즉, 역채점 문항의 구성타당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2에서는 253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몇 가지 검사를 실시하여 한국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척도 2(K-BFNE2)의 요인구조와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먼저, (K-BFNE2)의 요인분석을 한 결과 단일 요인이 추출되었다. 둘째, K-BFNE2는 사회불안 관련 질문지들과의 상관은 유의하였고, 다른 질문지들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제한점과 치료 및 연구에 대한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사회공포증, 사회불안장애, 한국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2

[†] 교신저자: 홍영근, 부산디지털대학교 상담치료학부 가족청소년상담학전공
E-mail : z9237039@bdu.ac.kr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사회적인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란 생각에서 나타나는 두려움을 말한다(Clark & Wells, 1995; Rapee & Heimberg, 1997). 사회공포증의 인지모형(Clark & Wells, 1995; Rapee & Heimberg, 1997)에서는 사회공포증이 부정적인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통하여 일어난다고 한다. 부정적 평가 두려움에 대한 관심은 사회공포증과 사회불안장애의 출현이라는 임상적 필요성과 함께 나타나게 되었고, 이 후 관련 척도들의 개발(Mattick & Clarke, 1998)과, 임상집단(Brown et al., 1997; Gore, Carter, & Parker, 2002)과 일반집단(Carleton & Asmundson, 2005; Rodebaugh et al., 2004; Stein, Jang, Livesley, 2002)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을 촉진하였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측정하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FNE, 이하 FNE)는 Watson과 Friend(1969)에 의하여, 30문항으로 구성된 진위형(예, 아니오) 척도로 개발되었다. 그 후, Leary(1983)는 이 척도의 30문항 중 12문항을 선별하여 12문항 5점척도(1점: 매우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의 단축형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Brie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BFNE, 이하 BFNE)를 개발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공포증에 대한 연구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정윤과 최정훈(1997)이 번안하여 타당화한 한국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K-FNE)가 사회공포증 연구에서 이용되고 있다.

최근에 사회공포증 연구에서 BFNE문항들의 요인구조적 특성과 타당성에 대한 문제가 새롭게 제기되고 있다(Carleton, McCreary, Norton, & Asmundson, 2006; Rodebaugh et al., 2004;

Weeks et al., 2005). BFNE의 요인구조적 특성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BFNE가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단일요인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였다(Learly, 1993; Stopa & Clark, 2001). BFNE를 번안하여 타당화한 이정윤과 최정훈(1997)의 연구에서도 단일요인이 추출되었다. 그러나, Rodebaugh 등(2004)은 BFNE의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BFNE가 단(일)요인이 아니라, 두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제안하였고, 기존의 단요인에 역채점 문항(점수 계산 시 역으로 채점하는 문항, 보통 부정문의 형식을 띠고 있음, 예: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인상을 주든 신경 쓰지 않는다)를 추가하였다. 즉, 이들(Rodebaugh et al., 2004)의 연구에 의하면, BFNE는 전체 12문항 중 8문항인 평서문 문항들(예: 나는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인상을 줄지 신경 쓴다)이 한 요인을 이루고, 역채점 문항인 4문항이 또 하나의 요인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역채점 문항이 문제가 된 이유는 Learly(1983)가 BFNE를 개발하면서, 반응척도를 FNE의 진위형척도(예 혹은 아니오)에서 5점 척도로 바꾸었고, 반응척도의 선택지가 많아지고 복잡해지면서, 수검자가 선택지를 이해하는 것이 어려워졌기 때문이다(Rodebaugh et al., 2004). 역채점 문항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첫째, 두 요인들(평서문 문항들과 역채점 문항들)에 해당되는 문항들은 동일하게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알아보기 위한 것이고 이론적으로 같은 요인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상관이 높아야 한다. 그러나 연구 결과 FNE(Watson & Friend, 1969)의 두 요인(평서문 문항들과 역채점 문항들)은 서로 상관이 높았으나, BFNE(Leary, 1983)에서 FNE의 두 요인들은 서로 상관이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둘째, 다른 사회불안 질문지에 대하여 BFNE의 역채점 문항은 평서문 문항보다 상관이 낮았다. 사회공포증이 있는 피험자를 대상으로 한 Weeks 등(2004)의 연구에서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 중 역채점 문항들(BFNE-R)이 평서문 문항들(BNFE-S)보다 사회불안관련 질문지들과의 상관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Rodebaugh et al., 2004), 실제로 FNE와 BFNE에서 역채점 문항은 평서문 문항에 비해 사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과 사회공포증이 없는 사람들을 잘 구분하지 못하였다(Rodebaugh et al., 2004). 셋째, 반응자가 받은 교육수준 특히 교육 연수가 역채점 문항과 평서문 문항의 반응에 다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Rodebaugh et al., 2004). Weeks 등(2004)의 연구에서는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역채점 문항에 더 잘 반응하였다. 평서문 문항에서는 두 집단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이 역채점 문항들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BFNE에 대한 몇몇 수정방안이 제시되었다. 첫째, Weeks 등(2005)은 12문항의 BFNE를 그대로 사용하되, 총점을 계산할 때, 평서문 문항인 8문항의 점수만 계산하고, 역채점 문항인 4문항의 점수는 총점에 포함하지 않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둘째, Rodebaugh 등(2004)은 BFNE의 12문항 중 4문항의 역채점 문항을 제외하고 나머지 8문항만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Carleton 등(2006)은 12문항을 다 사용하되 역채점 문항인 4문항을 평서문 문항으로 바꾸어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앞에서 제안된 세 가지 수정방안 중 앞의 두 방법(Weeks et al., 2005; Rodebaugh et al., 2004)은 공통적으로 문제가 되는 역채점 문항

을 제외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기존의 12문항에서 역채점 문항인 네 문항을 제외하면, 원래의 BFNE가 측정하고자 하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구분해 내는 민감성이 낮아질 수 있다(Carleton et al.,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역문항을 제외하지 않고 역문항을 평서문 문항으로 바꾸어서 원래 만들어진 질문지의 민감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런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Carleton 등(2006)의 BFNE2를 번안하여, 요인구조를 평가하고,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Carleton 등(2006)의 연구에서는 BFNE의 역채점 문항을 평서문 문항으로 바꾸어서 BFNE2를 제작하였고,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단일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BFNE2에 대한 타당화 연구에 앞서, 연구1에서 이정운 최정훈(1997)의 한국판-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척도의 요인구조를 살펴보았다. 이정운, 최정훈(1997)의 연구에서는 초기 요인분석에서 역채점 문항을 중심으로 하는 두 번째 요인의 고유치가 1이상으로 나타났고, 두 번째 요인으로 추출될 수 있었으나,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척도가 단일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지배적인 견해로 인해 배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K-FNE에 대한 요인분석에서 역채점 문항이 한 요인구조를 이루어 두 요인이 추출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또한, K-FNE(이정운, 최정훈, 1997)는 BFNE를 번안하였기 때문에 역채점 문항이 수검자를 혼란스럽게 해서 타당도가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였다. 즉, 역채점문항이 평서문문항보다 사회불안관련 질문지들과 더 낮은 상관을 보일 것이다. 그 다음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한국판 BFNE2의 요인구조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역채점 문항을 평서문 문항으로 바꾸었으므로 단일요인이 추출될 것이다. 둘째, BFNE2와 다른 척도들 간의 상관을 알아보았다. BFNE2는 사회불안관련척도(사회공포증 척도와 사회적 상호작용척도)와 불안에 대한 민감성을 측정하는 불안민감성 척도와는 높은 상관을 보일 것이고, 통증에 대한 공포와 불안행동을 측정하는 통증불안증후척도와는 낮은 상관을 보일 것이다.

연구 1

연구1에서는 현재 사회공포증 환자를 분류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정윤, 최정훈(1997)의 한국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K-FNE)에서도 Weeks 등(2005)과 Rodebaugh 등(2004)이 제기한 역채점 문항에 따르는 문제가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그래서, K-FNE의 요인구조를 살펴보고, 추출된 두 요인구조와 사회공포관련 질문지들과의 상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대구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수업을 듣는 대학생들 330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검사를 지필검사로 수행하였다. 남자가 124명(37.6%)이었고, 여자가 206명(62.4%)이었다. 평균 연령은 20.6세(표준편차 2.13)였다.

측정도구

한국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척도(K-FNE; 이정윤, 최정훈, 1997)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K-FNE를 실시하였고, K-FNE의 평서문 문항과 역채점 문항 각각이 사회불안 관련 질문지와 어떤 상관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사회적 회피 및 불안척도(SADS)를 실시하였다.

한국판-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K-FNE)

이 척도는 Watson과 Friend(1969)가 개발한 척도로서 진위형 30문항으로 구성된 척도에서 Leary(1983)가 전체 점수와 .50 이상의 상관이 있는 12문항을 뽑아서 5점 척도에 답하도록 수정한 단축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정윤과 최정훈(1997)이 번안한 한국판 FNE의 요인구조를 분석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이 척도의 요인구조가 단요인으로 나타났다. 이정윤과 최정훈(1997)의 연구에서, FNE의 내적 합치도는 .90이었고, 4주 간격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80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9였다.

사회적 회피 및 불안척도(SADS)

이 척도는 Watson과 Friend(1969)가 사회적 상황에서 불안을 경험하는 정도와 혐오적인 사회적 상황을 회피하려는 경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자기-보고형 검사이다. 본 연구에서는 SADS와 K-FNE-R(한국형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중 역채점 문항)의 상관이 SADS와 K-FNE-S(한국형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중 평서문 문항)와의 상관보다 낮은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SADS는 총

28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원래 진위형으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점수의 편포를 막고 개인 간 차이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이정윤과 최정훈(1997)이 한국판으로 변안하면서 5점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5.매우 그렇다)로 구성하였다. 한국판 SADS의 내적 합치도는 .92였고 4주간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88이었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는 .91이었다.

연구절차

심리학관련 수업을 듣고 있는 대학생들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와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척도를 실시하게 한 후 그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방법

SPSS18.0을 사용하여 요인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K-FNE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주축 요인 추출을 적용한 탐색적 요인 분석을 실시하였고, 요인 간 상관관계가 유의미할 것으로 가정되어 사교회전(Oblique Rotation)을 채택하였다. 그 결과 표 1에서와 같이, 고유치가 1이 넘는 요인이 2개가 추출되었다. 요인1의 고유치는 5.65였고, 설명변량은 47.09였다. 요인1에 해당하는 문항은 1번, 3번, 5번, 6번, 8번, 9번, 11번, 12번 문항이었고, 모두 평서문 문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2의 고유치는 2.01이었

고, 설명변량은 16.74였다. 요인2에 해당하는 문항은 2번, 7번, 10번 문항이었고, 요인 2에 해당하는 문항이 모두 역채점 문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역채점 문항 중 4번 문항은 요인1로 구분되었으나, 요인부하량의 차이는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의 스크리 도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세 번째 요인부터 경사가 완만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K-FNE에 대한 요인은 이 요인구조가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K-FNE의 요인구조가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과, 그 두요인 구조가 각각 평서문 문항들과 역채점 문항들로 나누어질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하였다.

그 다음으로 SADS와 한국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평서문 문항(K-FNE-S)과 한국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역채점 문항(K-FNE-R)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SADS와 K-FNE-S와의 상관은 유의하였으나($r=.28, p<.01$), SADS와 K-FNE-R간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r=.05, p>.05$). 따라서 본 연구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K-FNE-S와 사회불안관련 질문지와의 상관이 K-FNE-R와 사회불안 관련 질문지와의 상관보다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평서문문항이 역채점문항보다 사회불안관련 질문지와 상관이 더 높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한다.

위의 두 결과를 통해 Rodebaugh 등(2004)에 의해 제기된 K-FNE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는 이정윤, 최정훈(1997)의 연구에서는 단일요인구조라고 가정하였으나, 역채점문항이 한 요인을 이루는 이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K-FNE의 두 요인인 역채점 문항과 평서문 문항이 SADS와의 상관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즉, 평서문문항이

표 1. 한국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의 요인계수

문항	평균	표준편차	요인부하량	
			요인1	요인2
9.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나는 신경을 쓴다.	2.94	1.11	.81	-.14
8.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 지 걱정한다.	2.89	1.13	.80	-.12
1.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해 걱정한다.	3.45	1.19	.76	.03
5.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아 걱정 된다	2.48	1.16	.73	-.29
11. 나는 잘못 말 하거나 잘못 행동할까봐 종종 걱정한다.	2.64	1.33	.73	-.12
6. 나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신경 쓴다	2.27	1.89	.72	-.38
3. 사람들이 나의 결점을 알아차릴까봐 자주 두렵다.	2.45	1.18	.68	-.26
12. 다른 사람들이 나의 실수를 알아챌까봐 두렵다.	2.93	1.11	.65	-.14
4.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가에 대해 거의 염려하지 않는다.	4.34	0.92	.55	.53
7. 나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신경 쓰지는 않는다.	4.31	0.83	-.48	.60
2.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지라도 나는 이에 관심이 없다.	4.22	0.95	-.41	.60
10. 누가 나를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지라도 그것 때문에 영향 받지 않는다.	3.97	0.94	.45	.46
고유치			5.65	2.01
설명변량			47.09	16.74

스크리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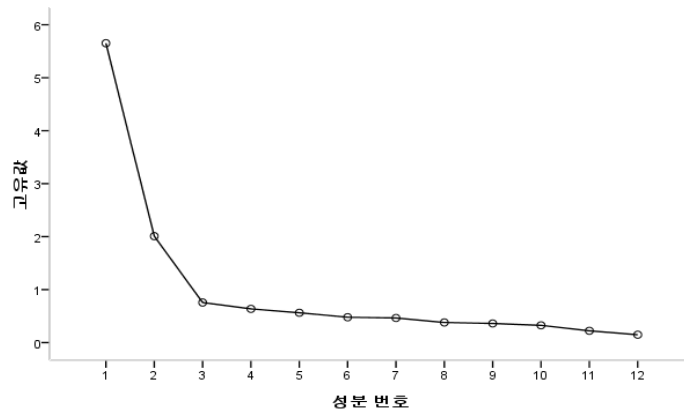


그림 1. K-FNE에 대한 스크리 도표

표 2. 사회적 회피 및 불안척도와 K-FNE-S, K-FNE-R과의 상관

	1	2	3
1.SADS	-		
2.K-FNE-S	.28**	-	
3.K-FNE-R	.05	.40**	-

SADS;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척도, K-FNE-S; 부정적평가에 대한 두려움척도-평서문 문항, K-FNE-R;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역채점 문항

역채점 문항보다 SADS와의 상관에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FNE의 타당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이 척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보완하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을 좀더 민감하게 구분해 낼 수 있는 척도를 만들기 위해 연구2에서는 Carleton 등(2006)의 BFNE2를 번안하여 타당화를 실시하였다.

연구 2

K-FNE(이정윤, 최정훈, 1997)는 다른 연구의 결과(Rodebaugh et al., 2004, Carleton et al., 2006)와 마찬가지로 이 요인이 추출되었고 K-FNE-S(K-FNE 중 평서문 문항)와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척도와는 상관이 유의하였으나, K-FNE-R(K-FNE중 역채점 문항)과 사회적 회피 및 불안 척도와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즉, K-FNE-R은 수렴타당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연구2에서는 역채점 문항인 4문항을 평서문 문항으로 바꾸어 평서문만으로 이루어진 BFNE2(Carleton et al., 2006)를 번안하여 요인 분석 및 타당화를 실시하였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대구 및 부산 지역에 있는 대학교에서 심리학 관련 수업을 듣는 대학생들 266명을 대상으로 질문지 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중 173명은 경제적 시간적 효율성을 고려하여 인터넷 상에서 검사를 수행을 하였고, 93명은 지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중 지필 검사에서 한 문항이라도 빠뜨리거나, 한 문항에서 두 선택지에 체크를 하거나, 성별 등이 표시되지 않은 사람 13명은 제외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총 253명의 자료가 수집되었고, 253명 중 남자가 23.7%(60명)이었고, 여자가 76.3%(193)였다. 평균 연령은 24.18세(표준편차 = 4.40)였다.

측정도구

모든 참가자들이 한국판-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2(K-BFNE2)를 포함한 질문지들을 완성하였다. 수렴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공포증척도(SPS)와 사회적 상호작용척도(SIAS), 불안민감성 척도(ASI)를 실시하였다. 불안민감성 척도의 하위 요인 중 인지불안증상

에 대한 공포, 공개적인 불안증상에 대한 공포와 K-BFNE2의 상관을 통해 수렴타당도를 알아보고, 신체불안증상에 대한 공포와의 상관을 통해 변별타당도를 알아보고자한다. 변별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통증불안증후 척도를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K-BFNE2의 준거관련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자아존중감 척도를 실시하였다.

한국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II (K-BFNE2)

본 연구에서 타당화한 척도로, Carleton 등(2006)이 개발한 BFNE-2를 번안한 척도이다. Carleton 등(2006)은 역채점 문항이 척도의 타당성을 떨어뜨리고, 수검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4개의 역채점 문항을 평서문 문항으로 바꾸어 12문항의 BFNE2를 개발하였다. BFNE2에서는 Leary(1983)의 BFNE에서 역채점 문항인 2번, 4번, 7번, 10번 문항을 평서문 문항으로 바꾸었다. Carleton 등(2006)에서 BFNE2의 내적합치도는 .95였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 합치도는 .95였다.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SIAS)

이 척도는 Mattick과 Clarke(1998)가 대인간 상호작용과정에서 겪는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로서 1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K-BFNE2의 수렴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 척도들의 각 문항들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요구하는 다양한 상황에서 개인의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반응이 자기진술형식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5점척도 상에서 평정된다(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 본 연구에서는 김향숙

(2001)의 연구에서 번안되고 타당화 과정을 거친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향숙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8~.94로, 4주 간격의 검사 재검사 신뢰도는 .92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0이었다.

사회공포증 척도(SPS)

이 척도는 Mattick과 Clarke(1998)가 대인관계에서 타인이 자신을 주시하는 상황에서 겪는 주시불안과 타인의 시선이 의식되는 상황에서 수행할 때 일어나는 수행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K-BFNE2의 수렴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점 척도 상(1점: 전혀 그렇지 않다~5점: 매우 그렇다)에서 평가된다. 본 연구에서는 김향숙(2001)의 연구에서 번안되고 타당화 과정을 거친 척도를 사용하였다. 김향숙(2001)의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89~.95로, 4주 간격의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1이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내적 합치도는 .93이었다.

불안민감성 검사(ASI)

이 검사는 개인이 불안을 경험할 때 그 불안증상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염려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검사 도구다(Reiss, Peterson, Gursky, & McMally, 1986). 이 척도의 하위 구성요소는 신체불안증상에 대한 공포, 인지불안증상에 대한 공포, 공개적인 불안증상의 공포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검사의 하위 구성요소들과의 상관분석을 통해 K-BFNE2의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하위구성요소 중 인지불안증상에 대한 공포, 공개적인 불안증상에 대한 공포는 신체불안증상에 대한 공포보다 더 높은 상관

을 보일 것이다. 이 검사는 총 16문항 5점 척도로 구성되었고, 전체 점수는 0-64점까지 분포되며, 각 문항의 점수를 합한 총점이 전체 척도의 점수가 된다. 이 척도는 신뢰도 및 타당도, 그리고 요인 구조의 면에서 매우 높은 심리측정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Watt, Stewart, & Cox, 1998). 본 연구에서는 원호택, 박현순, 권석만(1995)이 번안한 척도를 이용하였고, 원호택 등(1995)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9였다. 본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8였다. 하위 구성요소인 신체불안증상에 대한 공포, 인지불안증상에 대한 공포, 공개적인 불안증상의 공포의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제시한 순서대로 각각 .88, .71, .64였다.

통증불안증후척도(PASS). 통증불안증후척도는 McCracken, Zayfert 및 Gross(1992)가 개발한 40문항의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K-BFNE2의 변별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하위구성요소는 통증과 관련된 공포 및 불안행동을 몇 가지 측면에서 평가하기 위하여(1) 통증의 부적결과에 대한 공포, (2) 인지불안증상, (3) 도피 및 회피반응, 그리고 (4) 통증과 관련된 생리적 불안증상이다. 통증불안은 통증에 대한 공포 및 불안을 측정하는 것으로 사회적 상황에서 타인의 부정적 평가로 인해 불안을 나타내는 것을 측정하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과는 낮은 상관을 보일 것이다. 채점방식은 5개의 역채점 문항(2, 8, 16, 31 및 40번)을 역으로 계산하고, 나머지 모든 문항을 합한 총점이 전체 척도의 점수가 된다. 통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 척도의 신뢰도 및 타당도 그리고 네 개의 요인

구조는 매우 높은 심리측정학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McCracken, Zayfert, & Gross, 1993). 본 연구에서는 김청송(1999)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고,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94였다. 하위구성요소인 통증의 부적결과에 대한 공포, 인지불안증상, 도피 및 회피반응, 그리고 통증과 관련된 생리적 불안증상의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제시한 순서대로 각각 .83, .85, .74, .89였다.

자아존중감 척도(SES).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존중감척도는 Rosenberg(1965)가 개발한 도구를 전병제(1974)가 번안하였고, 긍정적 자아존중감과 부정적 자아존중감이 각각 5문항으로 구성된 자기보고식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K-BFNE2의 준거관련 타당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란 자기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이며 자신 스스로를 능력있고 가치있게 여기는 정도를 말한다(Rosenberg, 1979). 따라서,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자아존중감과 높은 상관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며,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이 자아존중감을 예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 문항에 대한 답은 1점(거의 그렇지 않다)에서 4점(항상 그렇다)까지의 4점 척도이고, 부정적 문항에 대한 응답도 4점척도 상에서 평정하지만 채점할 때는 역으로 환산한다. 본 연구에서의 자아존중감척도의 내적합치도는 .83이었다.

분석방법

SPSS 18.0과 Amos 18.0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전체문항과 관련성이 낮은 문항을 배제하기 위해 문항분석을 실시하

였다. 둘째,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요인을 추출하였다. 셋째, K-BFNE2의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사회공포증 척도, 사회적 상호작용 불안 척도, 불안민감성 척도의 하위요인들, 통증불안증후 척도의 하위요인들, 준거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자존감척도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요인분석을 하기에 앞서, 척도 중 부적절한 문항을 제거하기 위해 문항전체와의 상관과 내용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였다. 상관분석결과, 표 3와 같이 문항 총점과 각 문항의 상관

표 3. 총점과 각 문항과의 상관계수

	문항											
	1	2	3	4	5	6	7	8	9	10	11	12
문항-총점간 상관계수	.78**	.77**	.78**	.83**	.79**	.84**	.82**	.87**	.75**	.86**	.76**	.76**

** $p < .01$

표 4. 한국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2의 요인계수

문항	평균	표준편차	요인부하량
			요인1
1.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해 걱정한다.	3.11	1.02	.76
2. 사람들이 나에게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진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 고민한다.	3.24	1.08	.74
3. 사람들이 나의 결점을 알아차릴까봐 자주 두렵다.	2.52	1.10	.75
5.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아 걱정 된다	2.50	1.13	.76
6. 나에게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신경 쓴다	3.06	1.07	.84
7.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쓴다	2.88	1.07	.80
8.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 지 걱정한다.	2.85	1.10	.86
9.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나는 신경을 쓴다.	3.32	1.11	.73
10. 때때로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많이 걱정한다.	2.72	1.11	.86
11. 나는 잘못 말 하거나 잘못 행동할까봐 종종 걱정한다.	2.82	1.11	.73
12. 다른 사람들이 나의 실수를 알아챌까봐 두렵다.	2.48	1.06	.74
고유치			7.07
설명변량			64.29

스크리 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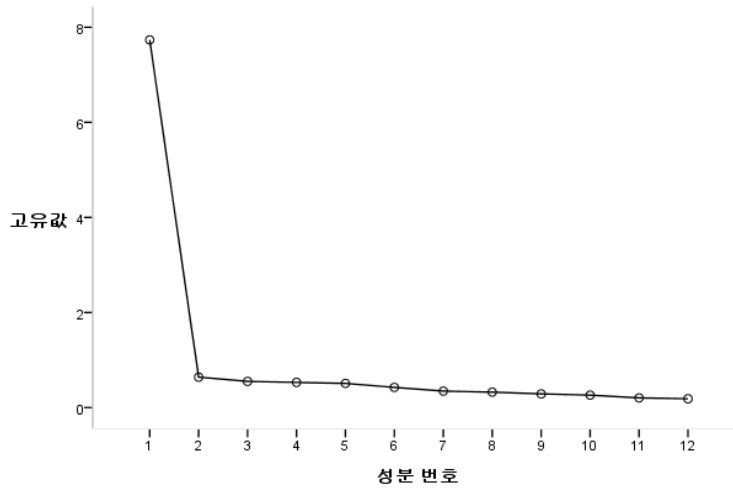


그림 2. 한국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척도의 스크리 도표

은 모두 .70이상($p < .01$)의 높은 상관을 보였다. 문항의 내용을 살펴본 결과, 역채점 문항을 평서문 문항으로 바꾼 문항4와 평서문 문항인 문항 8의 의미가 중복되는 것으로 나타나, 총 점과 상관이 상대적으로 낮은 문항 4를 제거하였다. 이에 따라, 문항4를 제외하고 11개의 문항을 요인분석하였다. 11문항의 내적 합치도는 (Cronbach's α)는 .94로 나타났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의 요인 구조를 탐색하기 위해 주축 요인 추출을 적용하였다. 요인분석과정에서 표본의 적절성을 측정하는 KMO 값이 .95로 상당히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Bartlett의 구형성 검정은 2008.18 ($df=55, p < .001$)로 요인분석의 사용이 적합하며 공통요인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요인분석결과 표 4와 같이 고유치가 1.0이상인 요인의 수가 하나로 나타났으며, 추출된 요인의 전체설명변량은 64.45%였다.

그림 2의 스크리 도표에서 볼 수 있듯이 기

울기가 첫 번째 요인에서 두 번째 요인사이에서 가파르게 나타났고, 두 번째 요인부터는 점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유치와 그 변화를 살펴본 결과 단일 요인 구조를 추출 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BFNE에서 역채점 문항을 평서문문항으로 바꾼 K-BFNE2가 단일요인으로 구성될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을 지지한다.

수렴타당도 및 변별타당도, 준거타당

표 5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K-BFNE2가 SIAS(사회적 상호작용불안척도) ($r=.31, p < .01$)와 SPS(사회공포증척도) ($r=.31, p < .01$), ASI(불안민감성검사)와의 상관 ($r=.24, p < .01$)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민감성검사의 하위 구성요소와 K-BFNE2와의 상관분석에서 인지 불안증상에 대한 공포와의 상관 ($r=.27, p < .01$)과, 공개적인 불안증상의 공포 ($r=.25,$

표 5. K-BFNE2와 다른 질문지들과의 상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K-BFNE2	-												
2.SPS	.31**	-											
3.SIAS	.31**	.79**	-										
4.ASI	.24**	.59**	.44**	-									
5.ASI-O	.24**	.61**	.46**	.84**	-								
6.ASI-C	.26**	.53**	.41**	.85**	.64**	-							
7.ASI-P	.13*	.42**	.28**	.88**	.55**	.63**	-						
8.PASS	.11	.33**	.31**	.38**	.34**	.33**	.30**	-					
9.PASS-N	.13*	.35**	.31**	.41**	.36**	.36**	.34**	.84**	-				
10.PASS-C	.10	.39**	.37**	.39**	.37**	.36**	.29**	.94**	.80**	-			
11.PASS-A	.04	.12	.14*	.13*	.15*	.12	.08	.80**	.45**	.66**	-		
12.PASS-P	.11	.29**	.26**	.40**	.34**	.33**	.34**	.92**	.76**	.81**	.62**	-	
13.SES:	-.23**	-.48**	-.51**	-.42**	-.35**	-.38**	-.36**	-.20**	-.29**	-.25**	-.01	-.19**	-

* $p < .05$, ** $p < .01$

K-BFNE2: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2, SPS: 사회공포, SIAS: 사회적 상호작용불안척도, ASI: 불안민감성척도, ASI-O: 불안민감성척도-공개증상, ASI-C: 불안민감성척도-인지증상, ASI-P: 불안민감성척도-신체불안증상에 대한 공포, PASS: 통증증후척도, PASS-N: 통증증후척도-부적결과에 대한 공포, PASS-C: 통증증후척도-인지불안, PASS-A: 통증증후척도, 도피 회피 반응, PASS-생리적 불안: 통증증후척도-P, SES:자아존중감척도.

$p < .01$)와의 상관이 신체불안증상에 대한 공포와의 상관($r = .14, p < .05$)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증증후불안척도와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r = .11, p > .05$). 통증증후척도의 하위구성요소와 K-BFNE2와의 상관분석에서 통증의 부적결과에 대한 공포와의 상관($r = .14, p < .05$)은 유의하였으나, 인지불안증상과의 상관($r = .11, p > .05$), 도피 및 회피반응과의 상관($r = .04, p > .05$), 그리고 통증과 관련된 생리적 불안증상과의 상관($r = .12, p > .05$)은 유의하지 않았다. 자아존중감척도와는 유

의한 부적상관($r = -.23, p < .01$)이 있었다.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2(BFNE2)를 번안하여, 타당화 하였다. 연구 1에서는 한국판-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K-FNE)의 요인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이정윤, 최정훈(1997)의 연구에서 단일 요인이 나온 것과 달리 2 요인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Rodebaugh 등(2004)과 Carleton 등(2006)

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며, 두 요인이 나타난 것은 역채점 문항들이 다른 한 요인으로 추출되었기 때문이다. 이정윤, 최정훈(1997)의 연구에서도 초기 요인분석에서 2요인이 나왔으며, 평서문 문항들로 구성된 한 요인의 고유치는 60.7. 역채점 문항들로 구성된 다른 한 요인의 고유치는 1.14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이 연구자들은(이정윤, 최정훈, 1997) 역채점 문항의 고유치인 1.14가 낮다고 판단하고 요인으로 구분하지 않고, 단일요인을 추출하였다. 이런 결과에 이른 것은 첫째 고유치값이 1보다 크지만 비교적 작았으며, 둘째, 이들(이정윤, 최정훈, 1997)이 연구할 당시에는 역채점 문항이 한 요인으로 추출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고, BFNE가 단일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척도에서 역채점 문항이 같은 의미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한 요인으로 추출되어 타당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결과는 역채점 문항을 이용하는 다른 질문지들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연구1에서 두 번째로, 평서문 문항요인 및 역채점 문항요인과 요인의 사회불안 질문지와 수렴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평서문 문항들(K-FNE-S)과 SADS간에는 상관이 유의하였으나, 역채점 문항들(K-FNE-R)과 SADS간에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역채점 문항이 평서문문항에 비해 수렴타당도가 낮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 중 개선되어야 할 문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2에서는 역채점 문항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Carleton 등(2006)이 개발한 BFNE2를 번안하여, 이를 타당화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단일요인이 추출되었다. 연구1의 K-FNE(이정윤 등, 1997)에 대한 요인 분석에서는 이 요인이 나온 반면, 연구2의 K-BFNE2에서는 단일요인구조가 나타났다. 단일요인구조가 나타난 것은 역채점 문항을 평서문 문항으로 바꾸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K-FNE 및 BFNE에 있는 역채점 문항이 사회불안과의 상관이 낮고 응답자가 이해하기 어려워서 타당도 및 신뢰도를 낮추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K-BFNE2에서는 역채점 문항을 평서문으로 바꾸어서 응답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질문의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어서 사회공포증 환자들을 더 잘 관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BFNE-II의 수렴타당도와 변별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회공포척도 및 사회적 상호작용척도 불안민감척도와는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안민감도 척도의 하위 구성요소인 인지불안증상에 대한 공포와, 공개적인 불안증상의 공포와의 상관이 신체불안증상에 대한 공포의 상관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결과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가 수렴타당도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통증에 대한 불안을 측정하는 통증증후불안척도와는 상관이 유의하지 않았다. 통증불안증후 척도의 하위구성요소와 K-BFNE2와의 상관에서 통증의 부적결과에 대한 공포와의 상관은 유의하였으나, 인지불안증상과의 상관, 도피 및 회피반응과의 상관 그리고 통증과 관련된 생리적 불안 증상과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이와같이, K-BFNE2는 관련성이 낮은 구성요소와는 낮은 상관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K-BFNE2는 변별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K-BFNE2는 자아존중감척도와는 유의한 부적상관을

보였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정도는 자아존중감 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의 대상은 주로 대학생들이었고, 사회공포증 환자가 참여 하지 않았다는 데 제한점이 있다. 이정윤, 최정훈(1997)의 연구결과에서는 K-FNE와 사회불안관련 질문지(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 척도)간의 상관분석에서 일반대학생들과 사회공포증환자들이 다른 상관을 보였다. 대학생들은 사회공포증 환자에 비해 낮은 약한 중간정도의 상관($r=.33$)을 보였고, 이 결과는 본 연구에서 K-BFNE2와 다른 사회불안관련 질문지들의 상관($r=.32, .31$)의 결과와 유사하다. 이정윤 등(1997)의 연구에서 사회공포증은 환자들은 K-FNE와 SADA에서 강한 상관($r=.58$)을 보였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가 일반인과 사회공포증 환자를 대상으로 했을 때, 어떤 특성을 나타내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요청된다. 둘째, 연구1과 연구2에서 K-FNE와 K-BFNE2의 사회불안관련 질문지들과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1에서는 SADS(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척도)를 사용하였고, 연구2에서는 SIAS(사회적 상호작용불안척도)와 SPS(사회공포증척도)를 사용하였다. 이와 같이 다른 척도를 사용함으로써 새로 개발된 K-BFNE2가 K-FNE보다 개선되었는지,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같은 타당도 척도를 사용하여 새로 개발된 척도의 개선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척도의 교차 문화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원척도를 한글로 번역하고 그 의미의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번역한 것을 역 번역하는 절차를 거쳐야 했는데, 그 절차를 거치

지 않고, 타당화한 것이 이 연구의 한계점이라 할 수 있고 추후 보완이 필요한 점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에서 사용되는 역채점문항의 문제점을 살펴볼 수 있었다. 역채점 문항은 평서문 문항보다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회불안이 있는 사람들을 구분해 내는데 평서문 문항보다 약하고, 사회불안질문지와 상관 분석한 결과 역채점 문항과의 상관이 평서문 문항과의 상관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역채점문항을 평서문문항으로 바꾸어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척도의 타당성 및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 이런 문제는 역채점 문항을 사용하는 다른 질문지들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사회공포증척도나, 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 척도, 사회적 상호작용불편감 척도도 역채점 문항을 사용하고 있고,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의 역채점 문항에 대한 가정에 따르면, 각각의 척도에서 사용하는 역채점 문항들과 전체척도와의 상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날 것이고, 사회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변별하는데 있어서 평서문 문항보다 낮은 변별력을 보일 것이다. 사회불안관련 척도 뿐 아니라 인간의 심리를 측정하는 많은 척도들이 역채점 문항을 가지고 있고 역채점 문항은 그 척도의 타당도를 낮출 수 있다. 질문지의 타당도와 관련된 이와 같은 문제들은 주로 질문지를 사용하는 심리학 연구에서 중요한 문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질문지에서도 질문지의 타당도 및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역채점 문항에 대한 확인 및 수정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본 연구는 역채점 문항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수정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역채점 문항을 가진 질문지들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는 연구들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역채점 문항을 개선하는 방법에는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방법을 비롯하여 하나를 더 추가하여 네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먼저 앞에서 제시된 세 가지는 역채점 문항을 없애거나(Rodebaugh et al., 2004) 역채점 문항을 수행은 하게 하되 점수에 넣지 않거나(Weeks et al., 2005), 역채점 문항을 평서문문항으로 바꾸는 것(Carleton et al., 2006)이다.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면 역문항이 응답자들의 반응편향을 줄이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역문항을 그대로 유지한 채 선택지의 수를 줄이는 것이다. 선택지를 줄이면 FNE는 문항의 선택지가 진위형(예 혹은 아니요)으로 이루어져 있고, 내담자가 문항들을 이해하기 쉬웠기 때문에, 역문항은 FNE전체 척도 및 평서문 문항과도 높은 상관관을 보였다.

본 연구는 사회공포증환자를 진단 및 분류하는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를 제작하고 타당화하였다.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는 사회공포증 척도, 사회적 회피 및 불편감 척도, 사회적 상호작용척도와 함께 사회공포증과 관련된 연구 및 상담 장면에서 많이 수행되는 척도 중 하나이다. 사회공포증 뿐만 아니라, 다른 특정 정신 장애를 구분하는 질문지는 치료 전에 내담자의 특성을 알아보거나, 실험 전에 연구대상자를 표집하고 구분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따라서 사전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피험자 및 내담자의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좀 더 효율적인 연구 및 치료적 개입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한국판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 척도

2(K-BFNE2)의 개발은 사회공포증에 대한 연구 및 치료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 김청송 (1999). 불안민감성이 동통반응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향숙 (2001). 사회공포증 하위유형의 기억편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원호택, 박현순, 권석만(1995). 한국판 공황장애 척도 개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4(1), 95-110.
- 이정윤, 최정훈 (1997). 한국판 사회공포증 척도(K-SAD, K-FNE)의 신뢰도 및 타당도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16(2), 251-264.
- 전병제 (1974). 심리척도 핸드북, 고려대학교 행동과학연구소. 서울: 학지사.
- Carleton, R. N., & Asmundson, G. J. (2005). Proneness to chronic pain in people with posttraumatic stress and social anxiety. In: Efekhari A, Chair. Next steps in understanding and treatment of PTSD. Symposium presented at 25th annual meeting of the Anxiety Disorders Association of America, March 17-20, Seattle, WA.
- Carleton, R. N., McCreary, D., Norton, P. J., & Asmundson, G. J. G. (2006). *The Brie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Revised*. Depression & Anxiety.
- Clark, D. M., & Wells, A. (1995). *A cognitive model of social phobia*. In R. G. Heimberg, M. R. Liebowitz, D. A. Hope, & F. R. Schneider (Eds.), *Social phobia: Diagnosis, Assessment and Treatment*, New York: Guilford Press.
- Gore, K. L., Carter, M. M., & Parker, S. (2002). Prediction anxious response to a social

- challenge: The predictive utility of the social interaction anxiety scale and the social phobia scale in a college population. *Behavioral Research and Therapy*, 40, 689-700
- Leary, M. R. (1983). A brief version of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9, 371-375.
- Mattick, R. P., & Clarke, J. C. (1998).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measures of social phobia scrutiny fear and social interaction anxiety.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36, 455 - 470.
- McCracken, L. M., Zayfert, C., & Gross, R. T. (1992). The Pain Anxiety Symptoms Scale: Development and validations of scale to measure fear of pain. *Pain*, 50, 67-73.
- Rapee, R. M., & Heimberg, R. G. (1997). A cognitive-behavioral model of anxiety in social phobia.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5(8), 741-756.
- Reiss, S., Peterson, R. A., Gursky, B. M., & McNally, R. J. (1986). Anxiety sensitivity, anxiety frequency, and the prediction of fearfulness. *Behaviour Research and Therapy*, 24, 1-8.
- Rodebaugh, T. L., Woods, C. M., Thissen, D. M., Heimberg, R. G., Chambless, D. L., & Rapee, R. M. (2004). More information from fewer questions: the factor structure and item properties of the original and Brie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Psychological Assessment*, 2, 169-181.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
- Stein, M. B., Jand, K. L., & Livesley, W. J. (2002). Heritability of social anxiety related concerns and personality characteristics: A twin study, *Journal of Nervous and Mental Disease*, 190, 219-224.
- Stopa, L., & Clark, D. M. (2001). Social phobia: comments on the viability and validity of an analogue research strategy and British norms for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questionnaire. *Behavioural & Cognitive Psychotherapy*, 29, 423 - 430.
- Watson, D., & Friend, R. (1969). Measurement of social-evaluative anxiet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33(4), 448-457.
- Weeks, J.W., Heimberg, R. G., Fresco, D. M., Hart, T. A., Turk, C. L., Schneier, F. R., et al. (2005). Empirical validation and psychometric evaluation of the Brie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 in patients with social anxiety disorder. *Psychological Assessment*, 17, 179 - 190.

1차원고접수 : 2010. 10. 5.

수정원고접수 : 2011. 1. 21.

최종게재결정 : 2011. 1. 22.

A Validation Stud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II

Hong, Young Keun

Daegu University

Moon Ji Hye

Kyungnam University

Jo Hyun Jai

POSTECH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velop and validate the Korean version of Brie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II. In the study1, K-FNE was completed by 330 university students. Exploratory Factor analysis showed that a two-factor structure can be derived from the K-FNE. One factor included straightforwardly worded items(K-FNE-S) and the other factor included reversed scored items(K-FNE-R). There were a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wo factors and SAD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correlation between K-FNE-S and SADS was significant, but the correlation between K-FNE-R and SADS was not significant.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K-FNE-R lowered the construct validity of K-FNE. In the study2, Participant were 253 university students. the result of factor analysis showed that a one factor structure was derived from the K-BFNE2. Secondly, exploratory factor analysis showed that the data was fit the one factor structure. Thirdly, the K-BFNE2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the SPS and SIAS. Finally, we discussed the K-BFNE2's implication concerning the study and treatment of social phobias.

Key words : social phobia, social anxiety disorder, Korean version of Brief Fear of negative evaluation scale-II

부록: 한국판-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척도 2(K-BFNE2)

문항

1.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대해 걱정한다.
 2. 사람들이 나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진다면, 나는 그것에 대해 고민한다.
 3. 사람들이 나의 결점을 알아차릴까봐 자주 두렵다.
 4.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을 것 같아 걱정 된다
 5. 나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 신경 쓴다
 6.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상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쓴다
 7.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 지 걱정한다.
 8. 누군가가 나를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 나는 신경을 쓴다.
 9. 때때로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많이 걱정한다.
 10. 나는 잘못 말 하거나 잘못 행동할까봐 종종 걱정한다.
 11. 다른 사람들이 나의 실수를 알아챌까봐 두렵다.
-